

일제강점기 순자연구분석(1)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발간된 국내·외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윤 태 양*

주제분류 유가철학, 근대철학

주요어 일제강점기, 순자, 한국철학, 근대철학

요약문

이 논문은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의 순자(荀子) 이해와 연구 동향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는 그 철학사적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순자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은커녕, 정리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미비에 착안하여, 잡지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지식인들의 순자 연구를 정리·분석한다.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순자 관련 기사는 23편이며, 필자는 이를 시기에 따라 셋으로 구분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1920년대, 1930년 이후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출판된 9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이들을 보자면 당시 순자를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성악설과 존군설을 경우로 대별할 수 있고, 성악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논조가 많던 반면 존군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가 다수였으나, 유득 이춘세는 홉스보다 순자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연구원

1. 서론

이 논문은 지금까지 조명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의 순자(荀子) 이해와 연구 동향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그 전후는 한국 근현대 철학의 많은 변곡이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사적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순자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은커녕, 정리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미비에 착안하여, 1906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했던 지식인들의 잡지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한국 지식인들의 순자 연구를 정리·분석한다.

이 연구는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세 부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첫째, “1900년대 초중반”이라고 하는 시대는 철학적, 철학사적 연구의 필요 혹은 가치를 갖는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면서, 국내외로 폭발적인 계몽운동이 벌어졌다. 기존의 체제를 이끌어왔던 전통철학에 대한 불신과 대체 요구의 폭발은 번역운동, 지식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지식인들의 사회참여가 이뤄졌다. 이 시기의 특징은 기존 사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사상의 활발한 수입이다. 그래서인지 19세기 말부터 해방까지 지식인들의 분투는 다양한 영역에서 상세히 분석되었지만, 유독 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

사회, 정치, 역사와 괴리된 철학사상은 등장할 수 없기 선대의 철학은 분석 가치가 있다는 일반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기 각계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변화와 지적 역동을 고려한다면, 근본학문이라 할 수 있는 철학분야에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동양철학에 대해서는 유림의

분열과 전통 철학적 문제들이 쇠퇴한 것, 서구사상의 수입과 번역에 치중된 당시 사상계의 분위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을 갖지 못한 것, 분석을 위한 당대의 텍스트 습득이 어려웠던 것 등으로 예상된다.

정재상(2006)은 한국에서의 순자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서 그 연구 범위를 1950년대부터 2005년으로 정했는데, 일제강점기의 순자 연구는 문헌이 부재한 탓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¹⁾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2013년부터 73종의 DB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 안에는 83종의 한국근현대잡지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누락되어 있던 20세기 초반 국내 연구경향의 분석은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되었다.

둘째, “순자에 대한 당대의 이해와 연구 동향”은 철학적, 철학사적 연구의 필요 혹은 가치를 갖는가. 한국에서 순자가 어떻게 수용·연구되었는지를 시대로 구분한다면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했던 조선시대가 첫 번째이고,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가 두 번째이며, 해방 이후 특히 60년대 이후가 세 번째일 것이다.

첫 번째 시대인 조선시대 순자 연구와 수용에 대해서는 윤무학(2009), 신두환(2013), 이경근(2014), 정재상(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윤무학은 고려시대의 이규보(李奎報, 1168~1241), 이제현(李齊賢, 1287~1367)으로부터 정약용(丁若鏞, 1762~1836)까지 순자가 언급된 문헌을 상세히 분석, 정리했다.²⁾ 신두환은 이규보로부터 정약용까지 있었던 순자 언급을 <성악설에 대한 비판>, <경세치용 학설에 대한 반응>, <예론 수용>, <문장전범> 등으로 분류했고, 이경근은 주로 17~18세기의 문헌을 중심으로 <성악설 주창 및 공문 비판>, <이사와의 사승관계>, <문장가 및 문학가

1) 정재상, 「韓國荀子研究評述」, 『漢學研究集刊』 3, 2006, 184쪽.

2) 윤무학, 「조선조에서의 선진 제자학 수용 양상—순자에 대한 비판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5, 2009, 251-292쪽.

의 면모> 등으로 구분했으며, 정재상은 크게 <비판과 배제의 양상>과 <긍정과 수용의 양상>으로 분류했다.³⁾ 이들의 연구범위는 공통적으로 정약용까지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세 번째 시대인 해방이후 연구는 정재상(2006)의 것이 있으나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은 드러난다.

셋째, “잡지 기사”는 “19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의 순자 이해와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들이야말로 순자는 물론 당시의 학문적 풍토를 이해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린(2007, 2008)은 일제강점기의 동양철학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첫째는 일제강점기의 엄격한 언론 통제를 고려한다면 “절제된 공적 글쓰기인 ‘논문’과 ‘저서’에만 의존해서는 일제강점기 철학의 한정된 면모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문과 잡지가 당시 “대중과 철학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이다.⁴⁾

이 글에서는 먼저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근현대 잡지 중 순자관련 기사를 점검한다.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우선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순자관련 기사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다음으로는 당시 순자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와 기사의 저자를 정리한다. 저자들 중 문일평과 박은식을 제외하면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연구기반 구축의 목적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9편의 기사를 주제에 따라 나누고 분석한다.

-
- 3) 신두환, 「한국의 『순자』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27, 2013, 235-267쪽; 이경근, 「당송 문인학자의 순자에 대한 평가 및 조선시대 순자 수용 연구」, 『태동고전연구』 32, 2014, 7-42.쪽; 정재상, 「조선시대의 순자 이해와 수용」, 『동방학지』 17, 2015, 189-222쪽.
 - 4) 이상린, 「일제강점기 신문을 통해 본 당시 동양철학의 현황」, 『일어일문학』 35, 2007, 347-348쪽; 이상린, 「일제강점기 잡지를 통해 본 당시 동양철학의 현황」, 『동북아 문화연구』 16, 2008, 132쪽.

2. 분석대상: 1906년부터 1945년까지 근현대 잡지에 기재된 순자 관련 기사들

이 연구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수록된 근현대 잡지자료DB를 활용해 수행되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00년부터 1945년까지 순자가 언급된 기사는 23편이다. 제목과 발행일, 발행처(권호), 저자 목록 등은 다음과 같다.⁵⁾

	제목	발행일	발행처(권호)	저자
1	性情論 (寄書)	1906.10.24	태극학보(3)	金太垠
2	東西 兩洋人의 數學思想	1907.05.24	태극학보(10)	金洛泳
3	進歩의 三階級	1907.06.24	태극학보(11)	文—平
4	教育宗旨續說 (承前)	1907.07.25	대한자강회월보(13)	金成喜
5	學界一班	1908.02.25	대동학회월보(1)	金文演
6	東西格言	1908.08.25	기호흥학회월보(1)	觀海生
7	儒敎求新論	1909.03.01	서북학회월보(10)	謙谷生
8	政治學說 (續)	1909.05.25	기호흥학회월보(10)	李春世
9	王陽明學論	1910.01.01	서북학회월보(19)	金源極
10	東西文化史上에 現하는 古今의 思想을 —瞥하고	1921.03.01	개벽(9)	朴達成
11	東洋道學의 體系如何(上)	1921.03.01	개벽(9)	姜春山
12	東洋道學의 體系如何(下之一)	1921.05.01	개벽(11)	姜春山
13	社會規範에 對한 義務觀念의 矛盾	1921.05.01	개벽(11)	尹弼均
14	東洋道學의 體系如何(下之二)	1921.06.01	개벽(12)	姜春山
15	世界中 最初의 物質不滅論者 徐敬德先生 朝鮮 十大偉人 紹介의 其一	1921.08.01	개벽(14)	미상
16	吳虞 氏의 儒敎破壞論	1922.05.01	개벽(23)	梁白華
17	上下 尊卑 貴賤, 이것이 儒家思想의 基礎觀念이다	1924.03.01	개벽(45)	起漣
18	二千年 前의 勞農主義者-墨子	1924.03.01	개벽(45)	小春
19	豪言妄談	1926.05.01	개벽(69)	春坡

5) 이하 모든 기사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본문 열람이 가능하다.

	제목	발행일	발행처(권호)	저자
20	新春誌上 競馬大會	1930.01.01	별건곤(25)	觀相者
21	貴族出身의 無政府主義者 李石曾氏 現代中國思想家列傳 (其一)	1931.02.01	동광(18)	申俊彦
22	東西古今人物座談會	1931.12.27	동광(29)	미상
23	戰爭文學과 民族文學, 中國文學의 世界史的 理念	1940.09.01	삼천리(12-8)	蔡元培

이상의 순자 관련 기사들은 시기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현대 잡지가 창간되기 시작한 1906년부터 일제의 국권침탈이 명실상부해진 1910년까지가 첫 번째 시기이다. 이때는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대동학회월보』, 『기호홍학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등 다양한 잡지에서 다양한 저자에 의해 9편의 기사가 출판되었다. 다음으로는 『개벽』지를 중심으로 다량의 기사가 출판된 1920년대인데, 이때는 모두 10편의 기사가 출판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나 구절이 잠깐 언급되는 정도이며 기사 수도 4편으로 적은 1930년대 이후이다.

출처로 보자면 『개벽』에 실린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태극학보』에 3건, 『기호홍학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동광』 등에서 2건씩, 『대한자강회월보』, 『대동학회월보』, 『별건곤』, 『삼천리』 등에 각각 1건씩 실렸다. 또한 「동양도학의 체계는 어떠한가」 시리즈를 쓴 강춘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자가 다르다.

요컨대 1919년 3.1 운동 직후인 1920년대에 『개벽』지에 실린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내용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 많으며, 또한 일제강점기가 직접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1906년에서 1910년까지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대동학회월보』, 『기호홍학회월보』, 『서북학회월보』에 실린 것들이 수량도 다음이고 내용 면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 1930년대 이후의 4편은 적어도 순자와 관련하여서는 주목할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순자 연구는 크게 셋으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1) 일제강점 직전: 1906년~1910년, (2) 3.1운동 직후: 1920년대, (3) 기타: 1930년대 이후 해방 전까지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그 첫 번째 시기에 출간된 9편의 기사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먼저 순자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와 저자에 대해 약술한 후 각 기사를 분석, 정리한다.

3. 순자 관련 기사의 잡지 및 저자 정리

1기인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순자 관련 기사가 실린 잡지는 『태극학보』, 『대한자강회월보』, 『대동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등 5종이며, 저자는 출간 순서에 따라 김태은(金太垠), 김낙영(金洛泳), 문일평(文一平), 김성희(金成喜), 김문연(金文演), 관해생(觀海生), 겸곡생(謙谷生), 이춘세(李春世), 김원극(金源極) 등 9명이다.

잡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들의 경우는 문일평과 박은식(겸곡생)을 제외하고는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상세하지 않다.⁶⁾ 이 연구는 이제껏 연구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특히 그 직전의 순자 연구 동향을 분석·정리하여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 사상계는 협소하여 여러 지식인들의 학회 참여와 활동이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것 또한 이 논문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리한다.

김태은

1906년 9월에 발간된 『태극학보』 제2호에 따르면 김태은은 경상도 출신 선사(禪師)로 1905년 일본에 와서 도쿄에 있던 쇼토슈 대학(曹洞宗大

6) 그러므로 박은식에 대한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學)에서 불교를 공부했으며, 현의(玄義)와 철리(哲理)를 관통한 인물로 소개된다.⁷⁾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검색결과에 따르면 김태은이 쓴 글은 모두 4편으로, 모두 1906년에서 1907년 사이 『태극학보』에 실렸다. 나머지 세 편은 「個人的 自身國家論」(제6호, 1907), 「三國 宗教略論」(제7호, 1907), 「漢城仲春再渡東京」(제9호, 1907) 등이다.

김낙영

김낙영은 태극학회 창립 당시 6명의 평의원 중 한 명이었으며, 『태극학보』 창간 당시 편집을 담당했고, 1907년에는 부회장을, 1908년에는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태극학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다. 태극학회가 대한홍학회에 흡수된 뒤에는 서기원, 평의원 등을 맡았다. 1906년 일본공예학교 전기과에 입학했고, 1910년엔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졸업했다.⁸⁾ 『태극학보』와 『대한홍학보』 등에 28회에 걸쳐 글을 기고했다.

문일평

호암 문일평(1888~1939)은 일제강점기의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상자이고 『조선일보』의 편집고문을 지낸 언론인이다. 1905년 일본 메이지학원으로 유학을 갔다가 1908년 귀국했다. 다시 1911년 정치학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에 입학했다. 『태극학보』 발간에 비용을 냈고, 기고도 했다. 대한자강회, 태극학회, 대한유학생회, 대한홍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태극학보』(8회), 『대한홍학보』(1회), 『개벽』(2회), 『동광』(2회), 『별건곤』(4회), 『삼천리』(1회), 『대중공론 조선강단』(1

7) 쇼토슈(曹洞宗)는 중국 선종 5대 종파 중 하나로 일본에는 가마쿠라 시대(鎌倉, 1185~1333)에 전래된 불교 종파이다. 쇼토슈 대학은 1905년 카마자와 대학(駒澤大學)으로 개칭했다. (카마자와 대학 홈페이지참조, <https://www.komazawa-u.ac.jp/about/>)

8) 『태극학보』, 3, 1906; 『태극학보』, 8, 1907; 『태극학보』, 17, 1908; 『대한홍학보』, 12, 1910. 참고.

회), 『동명』(2회), 『신민』(2회) 등 다수의 글을 기고하고 좌담 등에 참여했다.

김성희

송당 김성희(1847~1925)는 태극학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기호흥학회 등에서 활동했고, 특히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교관으로 있으면서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대한자강회월보』(19회)와 『대한협회회보』(9회), 『기호흥학회월보』(2회) 등에 30여 건의 자기반성적·애국계몽적 논조의 글을 기고했다. 이후 기고는 보이지 않으나 1919년 독립만세운동으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조선총독부에 12가지 부문에서 의견을 밝힌 시정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⁹⁾

김문연

김문연은 『기호흥학회월보』(4회), 『대동학회월보』(10회) 등에 글을 기고했다. 『기호흥학회월보』 제10호(1909년 5월 25일 발간)에는 대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학회는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후원금 2만원을 받아 이완용, 조중응, 민병석 등 친일인사들이 신기선을 내세워 만든 친일부역학회이고, 대동전문학교는 이 대동학회가 친일의 목적으로 한성에 세웠던 사립전문학교이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김문연의 「學界一斑」 또한 같은 호에 실린 신기선의 대동학회 설립 취지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해생

관해생은 당시 유행하던 형식의 필명으로 보인다. 『기호흥학회월보』에

9) 박수환, “특집 / 우리고장 출신 애국계몽운동가 송당 김성희(松堂 金成喜)②”, 《뉴스서천》, 2020.06.08.

모두 13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간단한 인용문 모음인 「동서격언」이 10편, 짤막한 이야기 모음인 「청구미담」이 3편이다. 『기호홍학회월보』에 실린 『동서격언』은 모두 16편으로 관해생 외에도 만운생(晩雲生)이 2편, 북악산인(北岳山人)이 4편을 썼고, 「청구미담」은 모두 10편이며 나머지 7편 모두 만운생이 썼다. 『기호홍학회월보』는 다양한 신학문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회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론과 기고를 요청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실명과 필명으로 참여했기에 관해생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춘세

이춘세는 『기호홍학회월보』에 10회에 걸쳐 논설과 시를 기고했으며, 김문연과 같이 대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대동학회월보』에 기고한 글은 보이지 않는다. 1908년 12월에 발간된 『대한협회회보』 제9호에는 대한협회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호홍학회월보』 제1호에는 홍필주와 함께 기호홍학회 회계검정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원극

김원극(金源極)은 박은식의 뒤를 이어 1909년 8월부터 『서북학회월보』(1권 16호)의 주필로 활동했고, 송남(松南), 춘몽(春夢), 춘몽자(春夢子) 등의 필명으로 『태극학보』에 5회, 『서북학회월보』에 13회 글을 실었다. 『태극학보』에서는 주로 기행문을, 『서북학회월보』에서는 교육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¹⁰⁾

10) 전성규 · 김병준,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 『개념과소통』 23, 2019, 159쪽.

4. 주제별 기사 분류

다음으로는 주제에 따라 기사들을 분석한다. 1기 9편의 기사들의 주제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태은, 김낙영, 문일평, 김원극 등 인성론 주제의 기사들이 한 종류이고, 김성희, 김문연, 박은식 등 정치론을 다룬 기사들이 다른 한 종류이다. 기타로는 관해생의 자기개발적으로 보이는 짧은 인용이 있다.¹¹⁾

순자의 인성론을 다룬 글들은 모두 5편으로 모두 성악설을 거론한다. 김낙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적 논조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이다. 반면 정치론을 다룬 것들은 모두 순자를 존군설(尊君說)의 창시자이자 유교를 제왕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게 만든 인물로 묘사하며 비판한다. 오직 이춘세만은 『순자(荀子)』 「예론(禮論)」편을 길게 인용하면서 순자의 성악설과 예론(禮論), 존군설을 들어 토마스 홉스와 비교하는데, 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홉스보다 낫다고 평가한다.

요컨대 당시 순자를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경우는 크게 성악설과 존군설을 경우로 대별할 수 있고, 성악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논조가 많던 반면 존군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가 다수였으나, 유독 이춘세는 홉스보다 순자를 높이 쳤다고 소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관해생의 것은 단순 인용에 불과하여 본문의 장절로 포함시키기 애매한 까닭에 이곳에서 주석으로 간략히 정리한다. 그의 「동서격언」은 제목처럼 동서의 여러 짧은 격언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속담과 키케로, 브라운, 소크라테스는 물론 『한서(漢書)』와 『예기』, 공자, 맹자, 오규 소라이 등도 인용했지만 그 사이에 일관된 주제는 뚜렷하지 않다. 관해생이 인용한 구절은 『순자』 「비상(非相)」 편으로 ‘법후왕(法後王)’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즉, 예의를 알기 위해서는 성왕을 알아야 하는데, 성왕이 많으니 시대의 변화를 따진다면 후왕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 법후왕의 주장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능근취비(能近取譬)’,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 등의 유가 공부론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제목	발행일	발행처(권호)	저자	길이	비중	주제	논조
性情論(寄書)	1906.10.24	태극학보(3)	김태은	짧음	낮음	인성론 (성악설)	중립적
東西 兩洋人의 數學思想	1907.05.24	태극학보(10)	김낙영	짧음	낮음	인성론 (성악설)	비판적
進歩의 三階級	1907.06.24	태극학보(11)	문일평	짧음	낮음	인성론 (성악설)	중립적
教育宗旨續說 (承前)	1907.07.25	대한자강회월보(13)	김성희	김	높음	정치론 (존군설)	비판적
學界一班	1908.02.25	대동학회월보(1)	김문연	김	높음	정치론 (존군설)	비판적
東西格言	1908.08.25	기호흥학회월보(1)	관해생	짧음	낮음	기타 (공부법)	중립적
儒敎求新論	1909.03.01	서북학회월보(10)	박은식	김	높음	정치론 (존군설)	비판적
政治學說(續)	1909.05.25	기호흥학회월보(10)	이춘세	김	높음	성악설 예론 존군설	긍정적
王陽明學論	1910.01.01	서북학회월보(19)	김원극	짧음	낮음	인성론 (성악설)	중립적

5. 기사분석 1-인성론(성악설)을 다룬 것들:

김태은, 김낙영, 문일평, 이춘세, 김원극

김태은의 「性情論(寄書)」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이 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대변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다섯 가지란 곧 맹자(孟子)의 성선(性善)설, 순자의 성악(性惡)설, 양웅(揚雄)의 선악혼(善惡混)설, 노자의 자연본체(自然本體)설, 한유(韓愈)의 삼품(三品)설이다.¹²⁾ 그에 따르면 동서와 고금의 학설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

12) 김태은(1906), 孟子曰 性이 善이라 訥시고 荀子曰 性이 惡이라 訥고 楊子曰 人之性이 善惡이 混이라 訥고 老子는 以自然爲性體訥고 韓公以不移로 分性之品訥고 其餘 耶蘇氏와 與神道敎之說 性도 亦不出於上五家之意則煩不總引而略陳管見訥노라.

도 본성이라는 것은 미묘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며, 『주역』, 『서경』, 공자, 증자, 주자 등이 모두 상론하지 않은 까닭이 있다는 것이다.

김태은은 이들 다섯 가지 본성에 대한 주장들에 모두 역사적 반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어떤 본성론도 인간 본성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¹³⁾ 말하자면 모두 부분적 설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혹자가 순자와 양옹의 설을 배척하고 맹자를 따르는 태도로 자신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며 그 대답을 소개한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앉아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맹자의 때에는 열국이 서로 다투고 상하가 이익을 쟁탈하여, 풍속이 어지러워져 스스로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까닭에 아성(亞聖)이 이를 비판하여, 말하면 반드시 요순을 언급하고 본성으로 보자면 모두 선하다고 주장했으니 그 본원을 방비하였을지라도 어찌 전체를 들어 말했다고 알겠습니까. 순자와 양옹의 학설도 또한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니, 그 본성의 용(用) 중 한 부분을 들어 말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본성의 전체를 거론하여 말한 것이라 한다면, 나는 결코 그들이 이목구비를 좇아 인간의 감정을 지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¹⁴⁾

(“楊子”는 揚雄으로 보이며 “揚子”의 오기인 듯하다.)

- 13) 김태은이 제시한 역사적 반례들은 다음과 같다.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는 양식아(楊食我)와 아사세(阿闍世)왕을, 순자에 대해서는 공자(孔子)와 문왕(文王)을, 양옹에 대해서는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와 고수(瞽瞍)의 아들 순(舜)을, 노자에 대해서는 장횡거(張橫渠)와 왕양명(王陽明)을, 한유에 대해서는 왕망(王莽)과 정장공(鄭莊公)을 반례로 들었다.
- 14) 김태은(1906), 或者 從傍而起 曰 荀楊 諸氏之說은 吾未知其精粗어니와 孟子之說이 亦 未得其中乎아. 余笑 曰 善哉라 問也여 坐하라 吾語汝하리라. 孟子之時에는 列國이 爭雄하고 上下征利하야 俗日趨下而不知自止故로 亞聖이 悲之하샤 言必稱堯舜而道其性上之一善하야 以防其源也언정 安知其舉其全體而言之也시리오. 荀楊 諸氏之說도 亦 不無其理하니 據其性用中一分而言之則可커니와 曰 據其性之全體而云也則吾決不以順口로爲作人情也호라.

김낙영의 「東西 兩洋人の 數學思想」은 국한문혼용체의 2회 연작 기사로, 수학사상이 기원한 원인을 둘로 구분하고, 서양에서는 수학사상이 흥기하여 강성하게 되었는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까닭으로 유교의 학문 독점을 탓한다.

즉, 학문의 방법에는 분파방법(分派方法)과 통일방법(統一方法)이 있는데, 동양은 유교 하의 통일방법을 좇은 까닭에 서양에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대에는 동양이 우수했으나 중세 이후로 서양은 통일방법에서 분파방법으로, 동양은 반대로 분파방법에서 통일방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것이 당대의 동서격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수학사상’이라고 했지만 ‘과학’도 포함하는 물질문명 전반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동아시아의 자기반성적, 독존유교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근대계몽적 기사라 할 수 있다.

순자와 관련된 부분은 ‘성악설’을 위주로 전편에만 등장하며 또한 매우 짧다.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소 난해하다. 그는 순자의 성악설을 이렇게 설명한다.

저 결주(桀紂)를 참되고 옳다고 말하고 요순(堯舜)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순자의 성악설은 제1원인인 자연적 지식 발달이라는 면에서 관찰하지 않은 까닭에 주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를 비롯해 훌륭한 지도자들은) 이 자연적 발달이 되는 제1원인을 교정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인위적 발달이 되는 제2원인으로써 인간의 지혜를 계발(啓發)시켜 인류의 본성은 선하다고 칭하여 자연적 발달이 되는 지식을 선의 방향으로 북진케 하였으며 ... 인류의 지식 발달은 사회의 공익을 도모함에 있다고 단정한 맹자의 성선설이 곧 이것이니 이는 제1원인으로 하여금 제2원인에 귀결, 교정되도록 한 것이라 말할 만하다.¹⁵⁾

15) 김낙영(1907), 더 桀紂는 眞正하다 云하고 堯舜은 騙詐하다 云하는 荀子の 性惡說은 自然的 智識 發達上으로 觀察치 아니함 所以니 故로 此 自然的 發達되는 第一原因을 矯正하기 爲人하여 人爲的 發達되는 第二原因으로써 人智를 啓發식혀 人

김낙영이 말한 제1원인과 제2원인은 수학의 발달에는 두 종류의 원인이 다. 곧 ‘인류(人類) 사회 생활상의 필요’가 제1원인이고, ‘인심(人心) 사회 공익상의 필요’가 제2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제1원인은 자연적 발달이고, 제2원인은 인위적 발달이며, 전자가 “인류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지식”이라면, 이 제1원인의 폐해를 교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할 만한데, 걸주를 추앙하고 요순을 비방한 적도 없거니와 이것이 그의 성악설의 내용도 아니며, 오히려 「왕제」나 「예론」, 「정론」, 「성악」 등 『순자』 전체 편의 일관된 지향은 바로 ‘사회의 공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일평의 「進歩의 三階級」은 동서고금의 개인과 사회, 국가의 흥망성쇠가 모두 <독단(獨斷)의 망종(忘從)>, <회의(懷疑)의 연구(研究)>, <총명(聰明)의 일치(一致)>라는 세 단계의 반복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나(支那)의 문(文) · 무(武) · 주공(周公) 시대는 총명일치의 시대였다. 이 총명일치의 시대가 독단망종에 빠지게 되니 바로 전국시대 초이다. 이어 독단망종 말기에 회의시대가 도래하니, 소진(蘇秦) · 장의(張儀)의 합종연횡(合從連橫), 한비자(韓非子) · 상앙(商鞅)의 법가학설, “순자의 천성악론(天性惡論)”, 오기(吳起)와 손빈(孫臏)의 병가학설 및 기타 백가의 논의가 쟁쟁하던 때이다. 그렇다면 당시는 어떠한가.

類의 性은 善이라 稱호야 自然的 發達되는 智識을 善의 方向에 北進케 호엿스며 第二原因도 第一原因을 接踵而起호여 其 起原이 頗히 遼遠호니 古 代 帝王과 其他 指導者들이 第一原因으로 由起호 人類智識 競爭의 弊를 禁正호기 爲호야 設行호 方法이니 其 國土를 從호여 差異가 或 有호나 亦是 人文 發達上에 自然히 經過호 만호 原因이 됨호로써 其 最初時代에는 宗教와 其他 教理를 適用호여 人民의 智識 發達됨이 宗教 及 教理에 基因호 거스호로써 爲主敎傳호여 人心에 信仰을 固定케 호 거시 大概 大同小異호 거신디더 人類의 知識 發達은 社會의 公益을 圖호에 在호다고 斷定호 孟子의 性善說이 卽 此니 이는 第一原因으로 第二原因에 歸正케 호 거시라 謂호리로다.

“회의시대가 극도에 도달했고 머지않아 광명시대가 도래할 것이니,
우리 동포 인사들은 이 삼계단의 법칙에 심히 마음을 써 웅비(雄飛)
의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라”¹⁶⁾

애국계몽의 취지는 가상하나, 순자에 대한 언급은 단 네 글자로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비중도 낮음으로 크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춘세의 「政治學說 (續)」은 1909년 1월 25일부터 동년 5월 25일까
지, 『기호홍학회월보』 제6, 7, 8, 9, 10호에 다섯 번에 걸쳐 토마스 홉스
(霍布斯)의 정치이론을 소개하는 연작기사이다. 순자와 관련된 부분은 마
지막 다섯 번째 기사의 도입부에 등장한다. 이춘세의 글은 순자의 학설
을 전반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사들과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내용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홉스와 순자의 비교는 현대 연구에서도 종
종 보이는 바, 「政治學說 (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자를 비교한 사
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단 가량의 전문을 인용한다.

곽포사(霍布斯, 홉스)의 학설은 자못 순자와 서로 비슷하다. 그 말
이 철학은 순자 성악의 중지요, 정치술은 순자 존군의 뜻이다. 『순자』
「예론」편에 말하길, ‘사람이 태어나면 욕망이 있으니 이 욕망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구하기를 도량과 분계가 없으
면 다투지 않을 수 없으니 다투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하게 되면 곧
궁색해진다. 선왕이 그 혼란을 미워한 까닭에 예의를 제정하여 시비
를 구분하며 사람의 욕망을 보양하고 추구를 보급한다.’ 했으니 그
이론이 쟁투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평화의 방국에 나아가게 함을 위
함이다. 그 형태의 등급과 순서가 홉스의 학설과 더불어 한 궤에서
나온 것과 같다. 다만 홉스의 의미에서 국가의 형성은 인민의 상호계
약으로부터 연유하지만, 순자의 이론에서 국가의 성립은 군주의 알력

16) 문일평(1907), 此 懷疑時代가 極度에 既達호얏슨 則 不遠에 又 一變호야 光明時
代가 到達호리니 我同胞人士는 <16>此 三階級の 理則에 深히 用心호야써 雄飛
의 準備을 勿忽할지여다.

에 연유한다 했으니 이 점이 서로 다른 지점이다. 이론상으로 보자면 홉스의 설이 고상하고 사실적으로 검증하자면 순자의 학설이 확실하고 진실되다. 그러나 순자의 말은 나라의 성립을 군주의 뜻에 연유한다 한 까닭에 군권을 말함에 오히려 능히 그 학설이 제 스스로 완성되지만 홉스의 말은 국가의 성립이 민의(民意)에 연유한다 하면서도 귀결은 군권(君權)으로 하니 이는 이른바 창을 잡고 자신을 찌르는 격이 된다.¹⁷⁾

마지막으로 김원극의 「王陽明學論」을 보자. 「王陽明學論」은 그의 다른 글들처럼 국한문 혼용체라기보다 현토가 달린 한문체에 가깝다. 김진량(2004)은 시기적으로 5~6년 정도 차이 나는 김원극과 현상운의 일본 유학을 비교하면서 김원극은 현상운과 달리 여전히 전통적 가치체계에 묶여 자신이 본 것들을 ‘본의’를 교훈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¹⁸⁾ 김원극의 보수적 태도는 「王陽明學論」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王陽明學論」은 제목 그대로 양명학을 해설한 글이다. 김원극은 우선 양명학이 다른 중국(支那) 철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윤리학 중심적이고 나아가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금석학이니 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17) 이춘세(1909), 霍布士의 學이 頗히 荀子와 相類하야 其言호니 哲學은 卽 荀子性惡의 旨오 其言호니 政術은 卽 荀子尊君의 義라 荀子禮論篇에 曰 人이 生호니 欲望이 有호니 此 欲望을 不得호면 不得不求호니 求호니 度量과 分界가 無호면 不得不爭호니 爭호니 則 亂호고 亂호니 則 窮호니 先王이 其亂을 惡호니 故로 禮義를 制호야 是非를 分호며 人의 欲을 養호고 人의 求를 給호다 하얏스니 此는 其論이 爭鬪호는 人羣으로 平和의 邦國에 進호을 爲호이니 其 形態의 級序가 霍布士의 說로 더브러 一轍에서 出호과 如호나 但 霍氏의 意는 國을 成호니 人民의 相約을 由호이라 稱호고 荀子의 論은 國을 成호者 君主의 竭力을 由호이라 稱호얏스니 此가 其 相異호는 點이라 理論上으로 觀호면 霍氏의 說이 高尚호고 事實上으로 驗호면 荀子의 說이 確眞호도다 然이나 荀子의 言은 立國을 君意에 由호다 호니 故로 君權을 言호니 尙能其說을 自完호고 霍氏의 言은 立國을 民意로 由호다 호니 其 歸宿이 君權에 乃在호니 此 所謂 矛盾을 操호야 自伐호이로다

18)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6, 1-17쪽.

는 것을 들어 “윤리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양명학과 주자학이 상반되는 지점이 셋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주자학은 ‘이기병존론(理氣併存論)’을 주장한 반면 양명학은 불가와 같이 ‘이기합일론(理氣合一論)’을 주장했다. 둘째, 이로써 주자학은 심(心)과 리(理)를 구분했지만 양명학은 심과 리를 하나로 여겼다. 셋째, 그리하여 주자학은 외계의 사물과 도리를 궁구했지만 양명학은 그렇지 않다. 그가 보기에 왕양명의 양지설과 성선설이 맹자로부터 시작했지만 곧 불가의 학설에 기원하는 것도 있다.

순자가 등장하는 부분은 후반부이며 그 길이와 비중도 매우 짧고 낮다. 다만 흔히 맹자와 대립적으로 설명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김원극은 양명학이 주장하는 양지(良知)의 설과 성선(性善)의 설이 부합하여 만인동성(萬人同性)의 설로 귀결되는데, 그에 앞서 만인동성의 설을 주장한 자들이 있으니 맹자와 순자라는 것이다. 맹자와 순자가 비록 성선과 성악을 말한 것은 다르지만, 만인동성의 설을 처음 주창했다는 김원극의 이해는 곧 그가 왕양명의 설에 반대편에, 말하자면 ‘만인이성(萬人異性)’의 설을 두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혐의한 만인이성설은 무엇인가. 「王陽明學論」에 양명학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학설들은 주자학, 불교, 맹자, 순자 등이다. 김원극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불교와 맹자, 순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거나 “만인동성의 설”이라는 등으로 말하며 양명학과 같은 계열로 설명한다. 이 중 양명학에 대립시켜 설명하는 것은 오직 주자학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왕양명의 이기합일론으로부터 불가의 동체불리(同體不離) 설과 같으며 주자의 리기분별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부분 등으로부터, 만인이성설에 주자학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하는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기사분석 2-정치론(존군설)을 다룬 것들:

김성희, 김문연, 박은식, 이춘세

정치론을 다룬 기사들은, 이춘세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순자가 지나치게 군주의 권력, 지위에 의존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 이후 순자 관련 국내 연구에서 순자와 존군을 연관시킨 연구는 4편에 불과하며, 그 중 법가가 아닌 존군을 순자의 정치이론으로 정리한 것은 송봉규(1995)와 조원일(2010) 등 두 편이다.¹⁹⁾ 이처럼 존군설을 들어 순자를 비판한 사례가 많은 이유로는 열강의 침범상황에서 조국의 무력한 원인을 되돌아 찾으면서 유교에 탓을 돌렸지만, 공맹(孔孟)은 감히 비판하지 못하고 순자에게 죄를 씌운 것은 아닐까 하는 혐의가 있어 보인다.

김성희의 「教育宗旨續說 (承前)」은 전호에 실린 「教育宗旨續說」에 이어 『대한자강회월보』 제13호에 실린 연속기고문이다. 두 편의 「教育宗旨續說」은 종교를 유교와 나머지 도교·불교·신교·기독교로 나누고 특히 구서(歐西 혹은 驅西, 유럽)의 기독교와 유교를 대비하며 유교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국민을 일치단결하도록 하려면 종교는 없을 수 없는 것인데, 다른 종교(즉,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종교를 높게 쳐서 ‘종교’라고 하고 믿고 따르지만, 유교를 믿는 나라들(즉, 한국과 중국 등)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의 등급과 국교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곧 나라에서는 요순과 공맹에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지만 일반 민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유교가 종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순자가 창안하고 이사의 무리가 발전시킨 존군설이라는 독

19) 송봉규, 「先秦儒家政治思想의 “道”와 “術”」, 『中國學論叢』 4, 1995, 386쪽; 조원일, 「荀子の 政治思想 研究」, 『中國人文科學』 45, 2010, 388-390쪽.

때문이다. 즉, 공자의 가르침이 동한(東漢) 이래로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데다 “사람을 다스리지 법을 다스리지 않는다(治人無治法)”는 등의 주장을 한 순자의 학문이 출현하여 이후 역대 군주들이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여 백성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어리석게 만듦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달성해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백성들 사이에 공자의 종지가 전수되지 못하게 되었고 시끄럽게 정론(正論)이니 횡의(橫議)니 위학(僞學)이니 진학(眞學)이니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아 봉당이나 짓고 분파나 나누게 되었다. “유교의 교육은 따지는 것(訟)으로 이뤄지고 서구 종교의 교육은 신앙(信)으로 이뤄진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이다.²⁰⁾

김성희의 논리는 공맹의 가르침은 훌륭한데 순자와 이사에 의해 제왕의 통치술로 오용되면서 일반 민중을 억압하고 우민화하는데 쓰이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공맹의 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곧 순자가 군권(君權)을 지나치게 존중하도록 했고 이사 등 제자들이 법가를 이뤄 이를 확대하여 유교의 본의를 호도했다는 주장은 김문연과 박은식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김문연의 「學界一斑」은 당시 한국 학계에 대한 비판적 정리가 목적으로 보인다. 요지는 학문의 발전은 서로 다른 이론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그 이유는 공자의 학술이 순자로 계승된 탓이다.

원래 공자의 학술은 민(民) 중심의 대동(大同)과 군(君) 중심의 소강(小康)의 두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동을 계승했던 맹자의 학설이 끊어지고 순자가 존군설로 소강의 의의를 이었다. 이후로 한비자와 이사 등 제자들이 진(秦)을 섬겨 오랫동안 순자의 학술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당송(唐宋) 시대가 되어 맹자가 부활했으나 대동의 의의가

20) 김성희(1907), 以教育界로 論之면 儒教教育은 以訟이오 驅西宗教教育은 以信이니

발명될 바를 잃어 공자 이래 이천 년 동안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서학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을 쫓아 근대화를 이루자는 대동학회의 설립취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당대의 나약을 유교의 탓으로 돌리되 공맹을 비판하지 않고 순자의 존군설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박은식의 「儒敎求新論」은 너무나 유명함으로 그 내용을 다시 부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순자와 관련하여서는, 그가 지목한 유가의 커다란 세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유교의 정신이 온전히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의 보급할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한다.²¹⁾ 곧 공자의 대동과 맹자의 위민이 아니라, 이사를 통해 순자의 존군과 우민이 널리 실행된 까닭이라는 것이다.²²⁾ 박은식은 이렇게 덧붙인다.

당시 진한(秦漢) 시기 유학으로 유명한 이들은 모두 순자의 계파이다. ... 역대 제왕이 육경(六經)을 표장(表彰)하여 유학을 공부한 신하를 중용(重用)한 것은 모두 유교의 예절과 명분을 사랑한 것이니, 공자를 추존한 것은 곧 그의 (학문적 역사적) 지위를 추존한 것뿐이다. 만약 공자의 도덕진리(道德眞理)를 사랑했다면 어찌 수신(修身) · 제가(齊家) · 치국(治國) · 평천하(平天下)의 실제 사업이 없었으리오?²³⁾

-
- 21) 박은식(1909), 所謂 三大問題는 何也오 一은 儒敎派의 精神이 專히 帝王側에 在하고 人民社會에 普及할 精神이 不足함시오
- 22) 같은 곳, 孔子ㅣ 歿후 諸子가 分處 各國호야 或 微言을 傳호고 或 大義을 傳호는디 孟子는 民爲重의 義를 發明호고 荀卿은 尊君權의 義를 表出호지라.
- 23) 같은 곳, 秦漢之間에 儒術로 名호는 者가 皆 荀學의 派라. ... 歷代帝王이 六經을 表彰호야 儒臣을 重用호는 것이 皆 儒敎의 禮節과 名分을 愛호야 孔子를 尊호미 卽 其 所有地位를 尊호미라. 若 其 孔子의 道德眞理를 愛호얏스면 엇지 修齊治平의 實地 事業이 無호얏스리오.

박은식 역시 유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나 그 원인을 순자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김성희, 김문연 등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들은 적절한가. 진한시대 유술(儒術)과 『예기(禮記)』의 편집 등이 순자의 후예들에 의해 전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송(唐宋) 이래 순자의 학설이 유가 내부의 적으로 간주되어 비난당하고 폐기당해왔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한국에서 더욱 심했다. 중국에서는 청대(清代)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江戶)에 순자가 다시 조명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순자』 주석이 나온 적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²⁴⁾

그렇다면 오히려 순자류의 학설은,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천 년 전에 유행했던 학설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가의 분열과 엘리트주의화를 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법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한비와 이사는 순자의 제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한비와 이사로 인해 존군의 법가가 널리 시행되었다면 이 역시 순자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현대에도 자주 순자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대답하자면 이는 적합한 비판이라기보다 졸렬한 비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순자는 당시 학자들의 집단활동지였던 직하(稷下)의 우두머리를 세 번이나 한 인물이자 춘신군(春申君)에 의해 난릉현의 영직을 맡기도 했던 인물이다. 박은식 역시 “맹자의 무리는 추나라와 노나라 사이에 있던 탓에 그 전수가 끝내 단절되었지만 순자의 무리는 조나라로부터 초나라에 이를 정도로 그 전수가 자못 광범위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 순자에게 제자가 한비자와 이사뿐이었겠는가. 또한 석가에게도 데바닷다라는 악제자가 있었고 예수에게도 유다라는 악제자가 있었지만 이들로 석가나

24) 정재상, 「조선시대의 순자 이해와 수용」, 『동방학지』 17, 2015, 189-222쪽.

예수를 비난하지 않는다. 석가와 예수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적합하게 물어져야 할 질문은 모두가 지적한 존군설이 순자 정치론의 핵심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순자의 정치론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도(臣道)」, 「유효(儒效)」 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자는 신하의 책임과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 또한 순자는 법가의 실현지로 여겨져 온 진(秦)에 대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유가적 통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상에서 보았을 때,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법가와와의 연관에 입각한 비판은 물론 유교의 권위주의화 · 엘리트주의화 · 봉당화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7. 결론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한국 근현대 잡지에 실린 순자 기사들 중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 1906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발간된 9편의 기사를 분석했다. 이로써 이제껏 누락되어 있던 당시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초석을 놓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 기사의 저자에 대해 누락 되어 있던 정보도 함께 정리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1기의 기사 9편은 주제로 보자면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성론을 다룬 것은 김태은 · 김낙영 · 문일평 · 김원극 등 넷이고 정치론을 다룬 것은 김성희 · 김문연 · 박은식 등 셋이다. 토마스 홉스와 비교한 이춘세는 순자의 인성론과 정치론 모두 다뤘다. 기 타는 1편으로 관해생의 것이 있지만 분량도 비중도 크지 않아 본고에서는 주석으로 간단히 다뤘다.

인성론과 정치론을 모두 설명했던 이춘세의 글을 제외하면, 인성론을

다른 것들은 모두 그의 성악설(性惡說)을 핵심주장으로 지목했으며 길이가 짧고 비중이 낮다. 반면 정치론에 대한 것들은 존군설(尊君說)을 지목하여 꽤 높은 비중과 긴 길이로 비판한다. 그러나 성악설을 지목한 네 편의 글 중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것은 김낙영의 것뿐이며, 김태은·문일평·김원극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춘세는 토마스 홉스와 비교하며 순자의 인성론과 정치론을 함께 설명한다.

이 시기의 연구 경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남겨둔 2기와 3기의 기사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분석한 1기의 기사들로 보자면, 비록 기사의 분량도 많지 않고, 논의의 깊이도 깊지 않지만, 해방 이후 순자에 대한 국내 연구들과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을 짚어낼 수 있다.

우선 여전히 인성론과 정치론이 중심 문제였지만 정치론에 있어서는 후대에는 예론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존군설이 주로 다뤄졌다. 또한 후대의 연구에서는 성악설을 문제시하고 정치론(예론)을 높게 평가한 것과 달리 이때의 연구에서는 성악설에 대한 비판적 논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정치론(존군설)에 대해서는 비판 일색이라는 점도 불만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직전 시대인 조선시대 후기의 순자 연구 경향과의 비교도 연구사적 의미를 충분히 가질 것이며, 동시대 청과 일본에서의 순자 연구 경향과의 비교 역시 매우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후속의 연구가 필요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참고문헌

- 『荀子集解』, 中華書局 新編諸子集成, 1988.
- 김진량,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 태학사, 2005.
- 관해생, 「東西格言」, 『기호홍학회월보』 1, 1908, 41-43쪽.
- 김낙영, 「東西 兩洋人の 數學思想」, 『태극학보』 10, 1907, 28-31쪽.
- 김명섭, 「1920년대 전반기 북경지역 한인들의 아나키즘 수용과정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9, 2014, 68-103쪽.
- 김문연, 「學界一斑」, 『대동학회월보』 1, 1908, 29-33쪽.
- 김성희, 「教育宗旨續說 (承前)」, 『대한자강회월보』 13, 1907, 16-17쪽.
- 김원극, 「王陽明學論」, 『서북학회월보』 19, 1910, 14-20쪽.
-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 26, 1-17쪽.
- 김태은, 「性情論 (寄書)」, 『태극학보』 3, 1906, 31-33쪽.
- 문일평, 「進歩의 三階級」, 『태극학보』 11, 1907, 14-17쪽.
- 박은식, 「儒敎求新論」, 『서북학회월보』 10, 1909, 12-18쪽.
- 박철홍, 「중국 아나키즘의 수용과 전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 2003, 109-137쪽.
- 송봉규, 「先秦儒家政治思想의 “道”와 “術」, 『中國學論叢』 4, 1995, 385-410쪽.
- 신두환, 「한국의 『순자』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고전연구』 27, 2013, 235-267쪽.
- 윤무학, 「조선조에서의 선진 제자학 수용 양상 - 순자에 대한 비판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25, 2009, 251-292쪽.
- 이경근, 「당송 문인학자의 순자에 대한 평가 및 조선시대 순자 수용 연구」, 『태동고전연구』 32, 2014, 7-42쪽.

철학탐구 제60집

- 이상린, 「일제강점기 신문을 통해 본 당시 동양철학의 현황」, 『일어일문학』 35, 2007, 347-361쪽
- 이상린, 「일제강점기 잡지를 통해 본 당시 동양철학의 현황」, 『동북아 문화 연구』 16, 2008, 131-152쪽.
- 이춘세, 「政治學說 (續)」, 『기호홍학회월보』 10, 1909, 27-29쪽.
- 전성규·김병준,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을 통한 『서북학회월보』와 『태극학보』의 담론적 상관관계 연구」, 『개념과소통』 23, 2019, 141-188쪽.
- 정재상, 「韓國荀子研究評述」, 『漢學研究集刊』 3, 2006, 182-220쪽.
- _____, 「조선시대의 순자 이해와 수용」, 『동방학지』 17, 2015, 189-222.쪽.
- 조원일, 「荀子の 政治思想 研究」, 『中國人文科學』 45, 2010, 383-395쪽.
- 박수환, “특집 / 우리고장 출신 애국계몽운동가 송당 김성희(松堂 金成喜)②”, 『뉴스서천』, 2020.06.08. (<https://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45>)

Korean Studies on Xunzi in Japanese Colonial Era (1)

Focus on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1906 to 1910 in Korea

Yun Tai–Yang (Konkuk Univ.)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Korean researching trends on Xunzi in Japanese colonial era, especially focused on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1906 to 1910.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one of most dynamic and important changing years for Korean philosophy but there are only less researches about that period and not even one research about Xunzi. This paper has started with this lack of knowing.

I grouped that articles to three: (1) 9 articles in 1906~1910, (2) 10 articles in 1920's, and (3) 4 articles after 1930. The 9 articles published in the first period could be classified by its themes as Human Nature, Society and Politics. All articles on Human Nature focused on the idea called 'Seongakseol(性惡說)' and almost all articles on Society and Politics pointed 'Jongunseol(尊君說)' as the core of Xunzi and blame him with that.

Key words: Koran Philosophy, Modern Philosophy, Xunzi, Korean Philosophy in Japanese colonial era

윤태양 E-mail : yuntaiyang.kr@gmail.com

투 고 일	2020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20년 10월 24일
게재확정	2020년 11월 12일